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설교 없이 인도자가 성경본문만 읽어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신 앙 고 백
찬 송

---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7장 11절~19절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 씬 나 눔
합 심 기 도

----- 감사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

- 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
- ② 가족들의 개인적 제목과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

주 기도 문

다 같 이
다 같 이

가 족 중
인 도 자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추석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 (눅 17:11-19)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먼저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될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나병환자들은 언제부터,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나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과 또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차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자신들의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르면 나병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난 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을 그들은 몸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10명의 나병환자들 중 9명은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나았음을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이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셨는데 그러지 않은 9명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그 10명 중 돌아온 이 한 명의 이방인 말고는 모두 유대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방인이며, 무시당하고 멸시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이었던 그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명의 이방인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영혼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는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똑같이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나아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말고는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받은 것은 많으나 그에 비해 감사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중 한 사람만이 감사하고, 열 번 은혜를 받으면 그중 한번 정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고통이나, 힘든 상황에서는 죽는다고, 소리치며, 아우성치면서도, 받은 은혜에는 무덤덤하고, 별 감흥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의 고침은 물론, 영적인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으며, 나아가 그 고난을 견딘 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며, 무뎌지지 말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복된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